

“선배들의 해외취업 성공tip 받아보세요”

코트라 광주서 해외취업설명회
일본·미국 등 최신 정보 제공
취업환경·성공 노하우 전수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외취업환경 설명회'에 참가한 청년인재들이 해외취업 정보와 주요 국가별 취업 전략 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코트라 광주사업단 제공)

1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해외취업환경 설명회'장. 150여 취업준비생들의 눈이 번쩍였다. 국내기업을 넘어 글로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일본·동남아 등 주요국 최신 정보와 국가별 취업 환경 및 진출 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담에 귀를 쫓긋 세웠다. 해외 생활이 외롭고 힘들겠지만, 더 큰 세상에서 포부를 펴겠다는 젊은이들의 패기가 오롯이 전해졌다.

코트라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인재들에게 해외취업 정보와 주요 국가별 취업환경 및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해외취업 지원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라 = 정부 등 각 부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오픈플랫폼인 월드잡플러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사이트에는 해외구인처, 취업행사, 취업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해외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국가별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라 = 상품 수출과 마찬가지로 해외취업도 국가별 수요

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인난을 겪는 일본은 적응력이 높은 한국인재를 선호하며,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더욱 환영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취업제약 요인이 커지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IT)을 중심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들은 도전을 해볼 만하다. 특히 사내직원 추천제도, 링크드인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 미국 기업 특유의 수시채용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등 신흥시장 국가에는 우리 진출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인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또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부가 많은 싱가포르, 외국계 서비스센터 운영기업이 다수 포진한 말레이시아 등은 능숙한 영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를 원한다.

◇선배들의 노하우를 적극 배우라 =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가급적 많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해외취업이 분명 새로운 경력과 경험을 쌓는 장점이 있지만,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적 차이, 언어, 일하는 방식, 정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가 매년 발간하는 '해외취업 성공수기'를 눈여겨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권했다.

◇사실에 근거한 멋진 '이력서 포장'도 실력이다 = 국가별로 다른 스타일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소개하는 이력서는 어려운 해외취업의 관문을 뚫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재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은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미국 기업은 구직자의 이전 경력의 회사의 직무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톡 톡 창업이야기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널려있다

최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들로 인해 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창업지원 사업들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저리대형식의 창업지원사업들이라면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주로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다.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도시재생 차원의 일환으로 외식이나 문화예술 등 점포형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농촌지역은 식품가공이나 유통, 교육, 체험 사업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농촌지역에서도 군소재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니 점포형 창업지원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창업자들은 자기자본만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누군가는 이런 지원정책을 활용해 부족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좀 더 안정적인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창업지원사업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취득해야 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넷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창조경제센터 등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창업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경제과나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과, 농식품 유통과 등이 맡고 있다. 물론 지자체마다 역할은 같아도 실과와 명칭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의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앞에 언급한 정부나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지원사업들을 확인, 철저한 사전 상담과 준비를 거쳐야 조금은 더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지원사업 신청서의 경우 대개 사업계획서 제출을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니 만큼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개의 창업지원사업들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예비창업자들은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나 기존 사업자 지원사업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대개의 창업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필요로 한다. 100% 창업지원금만으로 창업을 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며 일정 정도의 자부담은 필수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농촌형 지자체의 대부분은 단순히 자부담만이 지원조건이 아니라 1년 이상 된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에서 창업을 한 자영업자들은 가능하면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기에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광주경총, 스마트 팩토리 1기 입학식

7월9일까지 교육 진행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15일 조선대학교 ECO부품설계전산실에서 교육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 및 설계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은 광주지역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정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 지원 및 4차 산

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7월9일까지 CAD 및 CATIA, 품질관리, ERP생산·물류, 오피스 실무 등 전공 심화교육과 이력서 클리닉, 실전 모의면접, 현장감사 특강, 현장견학 등 교육을 진행한다. 수료하면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한다. 문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단 062-230-724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업체험캠프 참여 대학생 70% “창업생각 있다”

전남대·목포대 등 4곳 운영
우수농가 방문·현장체험 등

농업인의 생생한 영농 노하우와 창업 실전을 배우고, 그들 농가에서 실제 영농 실습을 하는 '대학생 농업 체험캠프'가 인기다. 수강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수업에 만족을 표시했고, 7명은 농업 창업의 뜻을 세웠다.

'대학생 농업 체험캠프'는 전남도가 청년들이 농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농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하반기 도입했다.

첫 해에는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에 강의를 개설했고, 지난해부터 전남도립대도 가세해 모두 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3학점 전공 선택 과정인 이 강좌는 첫째 57명, 지난해 166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갈수록 인기를 끌어 올해 1학기에는 92명이 수강 중이다.

당초 목표 8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관련 학과 학생은 물론 해당 단과대학 재학생이

만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비롯해 선도 농업인에게 다양한 노하우, 창업 이야기 등을 듣는 사례 강의, 우수 농가를 방문해 실제 영농을 경험하는 현장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종강 이후에도 수강생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최신 농업 정보와 영농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농업 관련 인턴실습과 창업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지원된다.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해 체험캠프에 참여한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80%가 현장체험 중심의 수업 내용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 87%는 농업 분야 창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강생의 69%는 향후 농업 분야 창업에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가 37%로 가장 높았고, 원예·특작 34%, 식량작물 24%, 임산물 3%, 축산 2%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